

## 비극의 동인(動因): 트로일루스의 무기력

이노경 (서울교육대학교)

### I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Troilus and Criseyde*)에서 독자는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한없이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의기소침한 나머지 행동 의지를 상실해 버린 한 기사(騎士), 트로일루스(Troilus)를 만나게 된다. 그의 이런 행동의 부재(inaction), 무기력함(acedia)은 종종 많은 비평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작가 초서(Chaucer)가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초두에서 이 작품의 중심 주제는 ‘슬픔’(sorwe)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swich peyne and wo as Loves folk endure)(1.1. 34)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다.

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트로이 프리아머스의 아들인

트로일루스가 사랑에 빠져  
 그의 인생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다시 슬픔으로  
 끈두 박치는 아프디 아픈 슬픔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네.

The *double sorwe* of Troilus to tellen,  
 That was the kyng Priamus sone of Troye,  
 In lovyng, how his aventures fellen  
 Fro wo to wele, and out of joie,  
 My purpos is, er that I parte fro ye.  
 (Book I, 1-5 ; 이탤릭체는 필자의 것임)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에 준해 ‘sorwe’는 상실, 고통, 또는 실망, 절망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스런 마음의 상태라 정의한다면, 이 시의 중심 관심사는 ‘고통 받는 마음의 고난’(angwissh of troubled herte)으로 인한 트로일루스의 정신적인 무기력증임이 분명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무기력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지는 ‘sorwe’ 앞에 붙는 ‘double’이라는 형용사의 해석에 따라 작품 전체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double sorwe’는 트로일루스가 크리세이드(Criseyde)의 사랑을 얻기까지의 아픔과 그녀를 잃은 후의 고통을 의미하는 ‘두 가지 슬픔’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픔의 강도가 ‘두 배로 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옥스퍼드 현대영어사전(The Oxford Modern English Dictionary, OMED)의 정의에 따라 ‘double’을 ‘거짓의, 속이는, 또는 의심스러운’(false, deceitful, or treacherous)이라고 본다면 트로일루스가 크리세이드를 잃은 것은 운명의 장난에 의한 것도, 크리세이드의 변절도 아닌, 트로일루스의 슬픔, 무기력 자체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부분 트로일루스의 행동 부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후자의 해석에 보다 강조점을 둔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랑의 중개인을 자칭하며 시 전체의 분위기와 대사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다루스(Pandarus)의 존재는 한층 트로일루스의 우유부단하고 소

심한 면을 부각시켜 마치 작가 초서 역시 트로일루스의 이런 무기력증을 그의 비극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강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작가 초서는 작품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에서 ‘사랑’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주인공 트로일루스와 그 외의 인물들 — 크리세이드, 판다루스, 그리고 디오메드 (Diomedes)— 과의 뚜렷이 대조되는 사랑에 대한 입장, 견해 차이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물간의 구분은 이상적인 궁정식 사랑(an ideal courtly love)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랑과의 대립구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사랑’은 트로일루스의 경우처럼 하나의 병적 징후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겪으면서 고통 받아야 할 질병인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다루스나 디오메드의 경우처럼 집을 짓듯이 잘 계획되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할 대상인 경우도 있고,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층 고귀하고 숭엄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작품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런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하나의 명확한 정의로의 귀결 없이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사랑, 구애, 이별이라는 이야기 전개와 맞물려 서로 부딪치며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독자들과 비평가들로 하여금 사랑 앞에서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의기 소침하는 주인공 트로일루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불만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작가 초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인공 트로일루스의 소심함, 수동성, 의기소침을 하나의 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할 방법을 찾거나 끊임없이 ‘행동’을 만들어 가는 판다루스의 입장을 통해, 트로일루스의 비극의 원인을 트로일루스 자신에게서 찾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밀로 키어니(Milo Kearney)는 ‘지금까지의 많은 비평에서 크리세이드의 결합은 부당하게 자주 부각되어 온 반면, 트로일루스는 비평가의 날카로운 눈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하면서, 주인공 트로일루스의 결합을 중심으로 작품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를 재분석하고 있다(185). 키어니는 트로일루스가 이상적인 궁정연인(‘an ideal courtly lover’)이자 이상적인 기사의 전형이라는 일반적인 평을 방패삼아 그를 공격하는 비평서가 적었다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크리세이드에 대한 비평이 넘쳐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다고 말하면서 트

로일루스의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의기 소침하는 경향, 그로 인한 행동의 부재, 무위(無爲)하는 모습을 비극적 주인공이 지니는 결함('notable character flaws')이라고 지적한다(Kearney, 191). 그의 이러한 견해는 욕정(lust), 탐식(gluttony), 탐욕(greed), 분노(wrath), 나태(sloth), 질투(envy), 그리고 자만심(pride)과 같은 일곱 가지 대죄(Seven Deadly Sins)가 문학의 중요한 담론이 되던 초서와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눈에 비친, 행동이 결여된 무위(無爲)의 트로일루스의 상태는 바로 나태함의 희생물이자 투영물로서 악(vice)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 작품을 비극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은 크리세이드의 변절이 아니고 바로 트로일루스의 결함에 있다는 이 글의 입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면에서 트로일루스는 생각의 미로들 속에서 길을 잃고만, 행동 의지가 마비된 셰익스피어의 햄릿(Hamlet)과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에게서는, 코울리지(Samuel Coleridge)의 말을 빌자면 '단순한 명상적 존재가 되어 본래의 행동력을 잃어버린' 햄릿의 일면을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136). 아버지를 살해한 자에 대한 복수를 통한 응징을 극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면서 철학적 사변과 담론으로 일관한 햄릿이 복수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음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받으며, 그런 행동의 부재가 햄릿을 결함이자 결국 극을 비극으로 이끄는 동인(動因)이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사랑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사랑을 잃은 후 모든 행동의 동기를 상실해 버린 채 땅에 드러누워 버린 트로일루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햄릿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로일루스의 수동성(passivity)은 햄릿과 마찬가지로 비극적 영웅으로서의 그의 성격이자 그의 이상주의(idealism)의 결과적 산물이고, 이러한 약점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랑과 대조를 이루어 오히려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평범한 한 젊은이를 보다 숭엄하고 덕스러운, 그래서 중세의 이상적인 궁정연인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일조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글의 취지라 할 수 있다.

## II

초서는 트로일로(Troilo)와 크리시다(Criseida)의 사랑을 다룬 보카치오(Boccaccio)의 『일 필로스트라토(1338)』(*Il Filostrato*)를 읽었을 때, (때로는) 수동적이고, 과장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이야기 서술자와 판다로(Pandaro)에 의해 끊임없이 ‘겁 많은, 소심한 사람 (tomido)’이라는 평을 받는 주인공에 주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랑의 열병으로 인한 무기력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즉각적인 사랑의 행위에 몰입하지 않고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에 도덕적 윤리적 우의를 둔 초서와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카치오의 트로일로는 그리 ‘소심하지도 (timid)’ ‘머뭇거리지도 (slothful)’ 아니했고 더욱이 ‘품위 있지도 (courtly)’ 아니했다. 이에 초서는 자신의 장편 시의 주인공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주인공의 품위를 더욱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트로일루스를 가장 독보하게 하는 덕목인 충실(fidelity)과 엇비슷한 무계로 견주어 질 수 있는 적절한 결함을 무기력감(acedia)이라는 점에서 찾으려 했다.

‘무기력’에 대한 담론은 14세기 전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솔로몬 쉬멜(Solomon Schimmel)은 저서 『일곱 가지 대죄』(*The Seven Deadly Sins*)에서, 정신의 쇠약에 따르는 무기력증을 하나의 악으로 보고 게으름, 졸음, 안절부절, 서성거림, 변덕, 우유부단함, 수다, 과도한 호기심을 모두 무기력(acedia)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중세 담론을 언급한 지그프리트 웬젤(Siegfried Wenzel)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무기력증에 대한 많은 담론들은 제각기 이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용기 또는 의지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무기력증에 대한 담론은 연애 문학 전통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이어갔다. 일예로 중세문학에 큰 영향력을 지닌 오비드(Ovid)의 “사랑의 치유”(Remedia Amoris)에서는 “만약 당신이 무기력함을 버리려한다면, 큐피드의 활을 꺾어 버리세요(139)”(If you take away idleness, you break Cupid' bow)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 중세 프랑스 연애 우화시인 “장미의 로망”(Roman de la Rose)에서도 “나태함은 장미 정원의 문지기라네”(Idleness is

the gatekeeper of the rose garden)라는 엇비슷한 표현이 자주 반복된다. 이 시행에서 장미정원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공간을 의미하고, 그들의 방해물로 나타함 혹은 무기력함이 지목된다. 예를 든 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의 열병과 그로 인한 심신의 무기력증은 하나의 병적 징후로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대적 담론을 장편의 연애시를 기획한 초서가 엄두 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다. 초서는 이미 이 프랑스 시에 흠뻑 취해 있었고, 비록 번역의 진위여부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랑의 여신에게서 연인의 사랑을 얻게 된다는 조언을 받는 꿈의 내용을 담은 이 시를 “장미의 로망스”(The Romaunt of the Rose)라는 제목으로 일부를 번역했다고 한다(Robinson, 564-565).

사랑 또는 구애(courtship)를 하나의 일(work, labour, or travail)로 보는 상황적 문맥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무런 일도 안하고 눈물만 흘린다거나 침대에 누워 이불만 뒤집어쓰고 있는 행위는 바로 무기력증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비록 셰익스피어의 극,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에서처럼 시의 제목에는 일(labour)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지만, 이 작품 『트로일루스 와 크리세이드』에는 사랑을 하나의 일, 작업으로 보는 틀이 형성되어 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판다루스의 경우가 바로 이런 틀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랑의 행위를 집을 짓는 행위로 비유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건 지을 집이 있다면,  
 당장 성급하게 연장을 들고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머리 속에 있는 것 재고 계획할거다  
 일을 성사 시킬 마음이 꼭 있다면.  
 판다루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그는 일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계획해 나갔다.

For everi wight that has an hous to founde

Ne renneth naught the werk for to bygynne  
 With rakel hond, but he wol bide a stounde,  
 And send his hertes line out fro withinne  
 Aldirfirst his purpos for to wynne.  
 Al this Pandare in his herte thoughte,  
 And caste his werk ful wisely or he wroughte. (I, 1065-7)

사랑이 건축되어야 할 집이라고 한다면,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지어져야 한다. 집을 짓는 행위가 침대 위에서 행하여 질 수는 없다. 트로일루스에게 단순한 영향력 이상의 심리적 조절 능력까지 부여받은 인물인 판다로스가 사랑에 대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상황 전개에 있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로일루스는 사랑의 무기력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이고 그래서 비난받아야 하고, 또한 치유 받아야 하는 무기력증의 희생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판다루스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보카치오의 판다로라는 중매인의 위치를 넘어서 작품에 독특한 색깔을 더한다. 그는 비록 판다로라는 인물에서 파생되었지만 작품에 극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트로일루스의 행동 부재와 직접적인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작품의 중심 주제 발전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한다. 그는 트로일루스 보다 연장자이면서 친구로서, 단순한 판다로 보다 복합적인 인물이고, 희극적 효과를 유발하는 인물이고, 사랑의 중매인으로서의 일에 지나치게 부지런함을 과시하면서, 도덕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킨, 이 작품의 총괄적인 무대 연출가이다. 워더비가 “트로일루스의 성격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동성(passivity)이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그의 행동에 있어 초지 일관적인 특성이 다”라고 평한 점에 대비시켜 놓고 보면(Wetherbee 65-67), 판다로스의 성격의 특징은 능동성(activity)이고 사랑의 중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그의 행동의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판다루스의 개입은 중심 플롯과는 관계가 적지만 등장인물의 성격분석과 주제 면에서, 트로일루스의 무기력함을 드러내 보이는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트로일루스의 수동성은 사랑이라는 ‘일’에 있어 트로일루스의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판다루스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1권(Book I)에서 자신의 친구 트로일루스가 실의에 빠져 괴로워하는 원인이 자신의 조카 크리스세이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후, 사랑의 해결사역을 자청하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이 일과 수고스러움을 주시게. 내 성공의 달콤함은 자네 것이 될 걸세(1042-43)”(Yef me this labour and this bisynesse, / And of my spede be thyn al that swetenesse)라고 말한 것을 보나, 2권(Book II)에서 트로일루스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데이피버스 (Deiphebus)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서로 만날 약속을 정하려 가면서, “자 이제 나 홀로 남아 이 일을 진행시키지 (1401)”(Now lat m'alone, and werken as I may)라고 말한 부분, 그리고 4권(Book IV)에서 절망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친구.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함세(650-651)”(and shortly, brother deere, / Be glad, and lat me werke in this matere)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판다루스는 이야기 곳곳에서 트로일루스의 행동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다루스는 누구보다도 트로일루스의 지나친 수동성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고 독자들은 판다루스의 지적에 따라 트로일루스의 수동성을 비난하게 된다.

판다루스는 또한 구체적으로 나태함(Slouth)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트로일루스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크리스세이드에게 트로일루스의 감정을 전달하고 돌아와서 판다루스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친구, 내 조카딸은 자네를 좋아할 걸세,  
내 마음을 걸고 말하는데, 자네를 가장 사모할테지,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계속 쫓지 않는다면, 나태함 때문에 다 망칠 수도 있지.

Sire, my nece wol do wel by thy,  
And love the best, by God and by my trouthe,  
But lak of pursuyt make it in thi slouth. (II, 957-59)

이런 충고를 받은 트로일루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처럼 보이자 바로 판다루스는 크리세이드에게 편지를 써볼 것을 제안하면서 트로일루스의 자발적인 행동을 제한하고(1002-1043), 후에 데이피버스의 집에서 크리세이드를 트로일루스가 누워있는 방을 데리고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나태함이 사랑의 진행을 훼방 놓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634-711). 판다루스에 의해 두 연인들을 위한 밀회를 계획한 것이 확실해 진 순간에도 트로일루스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드리는 듯하게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장황한 기도문을 늘어놓으면서 꾸물거리자, 판다루스는 “이 쥐새끼 심장 같으니라고, 그애가 널 물까봐 겁내하는 거야 (736-737)”(Thow wrecched mouses herte,/ Artow agast so that she wol the bite?)라고 핀잔을 주는 코믹한 부분에서도 역시 트로일루스의 행동부재를 엿볼 수 있다.

트로일루스의 우유부단함과 무력함은 보카치오의 ‘소심한’ 트로일로와의 비교에서 뚜렷해진다. 보카치오의 트로일로는 판다로의 도움 없이 크리세이드의 집으로 가서 크리세이드를 만나 적극적으로 밀회를 나누는 반면, 트로일루스는 판다루스의 부지런함이 없으면 아마 자신이 계속해서 말하듯이 울다 지쳐 죽어 버렸을 것 같은 나약함을 보인다. 크리세이드와 이별한 후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크리세이드가 없는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녀가 남긴 상흔만을 어루만지고, 그녀가 약속한 날짜만을 손꼽아 세는 것이 트로일루스의 행위의 전부이다. 그는 페트라르크(Petrarch)의 ‘무기력’의 정의에 따라 “마음을 슬프게 하는 고통의 관능적 황홀경”(a voluptuousness in suffering that makes the mind sad)이란 뜻에 걸린 그 자체와 같다(Jackson, 51).

사랑에 있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디오메드와의 대비 역시 트로일루스의 행동부재를 여과 없이 노출시킨다. “내 이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거다(V. 94)”(Al my labour shal not ben on ydel)이라고 대사에서처럼, 자신의 구애가 소용없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애는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있는 디오메드의 모습은 약삭빠르고, 두려움 없고, 현실적인 점에서 트로일루스와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역시 판다루스처럼 사랑을 하나의

작업, 일로 보고 있으며, 판다로스가 사랑의 행위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듯이 사랑의 전략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해 나간다.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이별 순간을 관찰하는 장면에서 그의 이런 모습은 드러난다.

확실히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테지  
 만약 내가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말이지  
 내 생각에 그녀는 아직 그를 마음에 담고 있고,  
 그를 밀어내기에 아직 이른 감이 있어.  
 하지만 내 방도를 찾아내리라,  
 그녀는 내가 의도하는 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Certeynlich I am aboute nought,  
 If that I speke of love or make it tough;  
 For doubteles, if she have in hire thought  
 Hym that I gesse, he may not ben ybrought  
 So soon away; but I shal fynde a meene  
 That she naught wite as yet shal what I mene. (V, 100-05)

비록 크리세이드는 그의 접근에 처음에는 그리 따듯한 대응을 하지는 않지만, 그의 수고('travaile')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 1권에서 트로일루스가 사랑이 단지 '수고(labour)'나 '고통(suffering)'이 될지 걱정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디오메드는 '수고'가 사랑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디오메드가 사랑의 행위를 뉘시의 이미지리를 사용하면서 비교하는 장면에서 초서가 의도적으로 무계획적이고 인위적이지 않는, 그로 인해 나태해 보이는 주인공 트로일루스를 염두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이 디오메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계략과 술수로  
 자신이 의도한 바를 해나가는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면 크리세이드의 마음을 자신의 그물에

지체함없이 넣을 수 있는지를 계속 궁리하지.  
 이 목적을 위해 그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그녀를 낚기 위해, 그는 낚시밥과 줄을 던진 거라네.

This diomed, of whom yow telle I gan,  
 Goth now withinne hymself ay arguynge,  
 With al the sleghte and al that evere he kan,  
 How he may best, with shortest tarynge,  
 Into his net Criseyde herte brynge.  
 To this entent he koude never fyne;  
 To fisshen hire he leyde out hook and lyne. (V, 771-77)

낚시의 이미지리는 게으른 사람을 밭에 물이 젖을 까봐 물고기 잡는 것을 꺼리는 고양이에 빗대는 비유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디오메드는 결코 이런 고양이가 아닌 반면 트로일루스는 암시적으로 이런 게으른 고양이이라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5권(Book V)의 끝부분에서 트로일루스는 전쟁터에서 디오메드를 찾으며 전의(戰意)를 불태우는데, 독자들은 순간 트로일루스가 무기력함을 벗어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트로일루스는 극도의 절망감과 고통에서 오는 무기력의 최후의 표시인 죽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적장 디오메드의 망토에서 자신이 선물한 크리세이드의 브로치를 발견한 순간 그는 디오메드를 죽이고 싶은 욕망과 함께 자신의 죽음의 동기도 찾게 된다.

단연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어떤 핑계도 없이  
 나는 이 전장에서 내 죽음을 찾을 거다.  
 그 날이 언제가 돼든 상관하지도 않을 거다.

And certetnly, withouten moore speche,  
 From hennesforth, as ferforth as I may,

Myn owen deth in armes wol I seche;  
I recche not how soone be the day! (V, 1716-19)

트로일루스가 마지막으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보인 것은 복수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 역시, 지금까지 논의되어오는 무기력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더비의 주장이다(Wetherbee, 121-123). 보카치오의 트로일로로는 분노와 복수의 열망으로 디오메드를 죽이려고 하는 점에서 그의 분노는 외부로 향하는 힘이자 행위를 이끄는 동력인 반면, 트로일루스는 사랑의 고통이 원심력에 의해 내부로 향하듯, 그의 분노 역시 트로일루스 자신을 향하게 된다. 초서는 작품의 마지막까지 철저히 주인공 트로일루스를 무기력의 희생물로 자리매김한다.

### III

그렇다면 초서는 이렇듯 극도로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행동 의지를 상실한 트로일루스를 만들어 낸 의도는 무엇일까? 트로일루스의 무기력함을 노출시키기 위해 판다루스의 개입의 빈도와 목소리의 크기를 증폭시키고 있고, 디오메드를 더 공격적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인물로 설정하여, 트로일루스의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의기 소침하는 경향을 그대로 독자에게 비난의 대상으로 노출시키고, 거기에서 판다루스의 주도적인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트로일루스의 수동성과 나태함을 공격하고 있는 설정은 작가 초서 역시 이 시의 비극적 결말의 원인이 바로 트로일루스의 무기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함이다 라는 판단을 무리 없이 이끄는 것 같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작가 초서는 트로일루스의 무기력을 비극적 결함으로 부각시키면서 무엇보다도 크리세이드에게 일방적으로 향한다. 도의적 책임의 무게가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사랑의 덧없음 혹은 크리세이드의 지조 없음과 트로일루스의 신의(fidelity)의 양극화된 상황에 따라 양분된 도덕적 선입관을 지니고 있다. 비록

나레이터의 목소리의 뒤에서 크리세이드를 옹호하는 초서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름다움을 갖춘 모든 여인들에게,  
 지성을 갖춘 모든 숙녀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비록 크리세이드는 지조 있는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는 없소.  
 그러니 다른 책에서나 그녀의 치부를 읽도록 하시오.  
 만약 원하신다면, 기꺼이 지조의 여인 페넬로프나  
 절개를 지킨 알세스테 이야기를 나중에 잘 써보리다.

Bysechyng every lady bright of hewe,  
 And every gentil womman, what she be,  
 That al be that Creseyde was untrewē,  
 That for that gilt she be nat wroth with me.  
 Ye may hire giltes in other bokes se;  
 And gladlier I wol write, yif yow leste,  
 Penelopees trouthe and good Alceste. (V.1772-1778)

크리세이드는 사랑의 맹세를 깬 것과 트로일루스의 비극적 결말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트로일루스의 무기력을 비극적 결함, 비극의 동인으로 두어 사랑을 완성하는데 있어 부분적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크리세이드에게 향한 모든 책임감을 일부 덜어 트로일루스에게 분배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이는 초서의 뛰어난 이야기 기술방식의 일면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자신의 작품의 여주인공에 대한 연민의 공간을 좀 더 할애하고자 하는 초서의 애정 어린 작업으로도 해석 가능한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서는 결코 사랑의 감정에 의해 무기력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 지연, 태만, 무기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무기력’ 혹은 ‘나태함’을 지나치게 계획적이고 현실적이고, 계획적

인 사랑관과 대조시키면서 이상적이고 한 단계 성숙한 사랑을 옹호해 보려 한 듯싶다. 어떤 점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에서 무기력함의 언급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서가 트로일루스의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한편으론 희극적으로 또 한편으로 연민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현실감 있는 인물 창조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의 인물들 중 어느 누구도 결점이 없이 완벽한 이상적인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트로일루스 역시 그의 고귀함(nobility), 일관된 지조, 탁월한 감수성, 그리고 기사로서 훌륭한 무용 등의 장점과 어우러지는 무기력감의 지적은 오히려 트로일루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감을 나타낸다. 트로일루스의 무기력을 비난하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어조로 보다 추진력 있고, 행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용기 있고, 이성적인 판다루스와 디오메드를 병치시키고 있지만, 그들은 트로일루스가 지니고 있는 보다 이상적인 가치들—작가 초서 역시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결국 트로일루스를 돋보이게 하는 대조역(foil)밖에는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트로일루스의 무력감은 판다루스와 디오메드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랑관과 구분 지을 수 있는, 품위 있고, 이상적인 사랑의 결과물로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주제어: 무기력, 행동의 부재, 우울증, 행동력, 세속주의, 이상주의

## Works Cited

- Chaucer, Geoffrey. *The Complete Works of Geoffrey Chaucer*. Ed. F.N. Robinson. 2nd ed. Oxford: Oxford UP, 1983.
- Coleridge, Samuel Taylor. *Coleridge's Criticism of Shakespeare*. Ed. R.A. Foakes. London: Athlone, 2001.
- Jackson, Stanley W. "Acedia, the Sin and its Relationship to Sorrow and Melancholia." *Culture and Depression*. Ed. Arthur Klei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6.
- Kearney, Milo. "The Flaw in Troilus." *Chaucer Review* 22(1988): 178-199.
- Ovid. *The Art of Love*. Trans. James Michie. Modern Library Edition, 2002.
- Schimmel, Solomon. *The Seven Deadly Sins*. Oxford: Oxford UP, 1997.
- Wetherbee, Winthrop. *Chaucer and the Poets: An Essay on Troilus and Criseyde*. New York: Cornell UP, 1984.

## Acedia as a Motive in Troilus' Tragedy

Abstract

Noh Kyung Lee

This paper is a defense of Troilus' acedia, which has been the target of severe criticism in the tragic denouement of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Troilus, a shy, inactive, and excessively depressed hero, makes himself a tragic victim of this play. It can't be easily denied that Troilus is at the core of the tragedy. He looks like Hamlet, lost, trapped, and paralyzed in the maze of thought.

Troilus, an ideal courtier and honorable knight, consistently hesitates over and keeps a low profile to Criseyde, the lover, while both Pandarus and Diomedes are busy taking action. Pandarus, who diagnoses Troilus' acedia as a disease and tries to cure it, and Diomedes, who is an active and aggressive warrior of love, are foils to Troilus' acedia. For them, love is a kind of work, an object of action, and a labor to be planned and manipulated. Chaucer intentionally uses Pandarus and Diomedes' rashness, activeness, and secularism to emphasize Troilus' inactive and passive characteristics as tragic flaws.

Troilus' acedia can be considered a tragic flaw that brings about the hero's tragic end but must not be criticised or under-evaluated. Chaucer doesn't take a negative approach to such psychological symptoms as procrastination, lethargy, and negligence. As for the outcome of Idealism, Troilus' acedia is in sharp contrast to the secular view of love, and makes the man, who wanders off in the maze of love, nobler and more sublime. Balanced with Troilus' consistency, sensibility, and nobility, it helps create a real human being, and makes Troilus' love ideal and spiritual, remote from practicalism and secularism of Pandarus and Diomedes.

Key Words

Acedia, inactivity, depression, activeness, secularism, idealism